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읽은 책 속에서 저자는 중국을 사춘기 소녀처럼 감정이 아주 예민하고 불안정하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춘기의 나라'라고 표현했다. 한참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아들의 모습을 함께 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사춘기를 벗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본다.

사춘기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이라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넘기고 올바른 자아와 가치관을 가진 참된 성인으로서 성장해 간다.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사춘기를 벗어났을까?

사춘기를 지나 참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에 비추어, 아직까지 인간의 됴됨이와 내면의 충실함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더 중요시한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춘기 성인'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답을 적어본다.

우리나라가 사춘기를 벗어나 참된 성인, 즉 선진국으로 성장해 가는데 '거화취실'(去華就實)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모기업의 경영철학으로도 유명한 이 사자성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실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랜 시간을 걸쳐 완성되어 온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화려하고 거창한 단어로 포장하여 여겨지거나 마구 쏟아내고 있다. 물론 성공적인 변화와 개혁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환류, 내실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정책과 제도, 조직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도자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존해서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하드웨어적 성과를 생각하고, 정책이나 계획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내는 힘든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빠져있는 사춘기 아이들과 다를름을 것이다.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 특히,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기 힘든 환경 분야와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 올바른 자아와 가치관을 가진 참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분야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려한 수식어구로 포장된 정치적 공약에 묻혀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과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정책이나 제도는 매우 선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계

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화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밀한 환경정보와 관련 전문가의 부족, 개발사업비에 비해 턱없이 작은 평가비용, 관련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대처 등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 하겠다.

최근 정부는 대학 교육의 특성화와 내실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화려한 스펙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에서 내실있는 직무능력과 인성을 점차 중요하게 고려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수학을 풀어가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스토리텔링 수학'이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국어어, 수학어어?'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의 질문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거화취실'을 강조하고 싶다.

의료칼럼



김태희
청담산부인과외과 중앙외과 원장

주부 신모(41)씨는 30대 중반에 결혼한 후 일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신을 미루다 최근 임신에 성공했다. 산전 검사를 통해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 임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소인은 없는지 자궁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고령 임신인데 임신 성공 전 자연유산의 위험이 있던 터라 혹시 태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다. 전문의의 조언을 받으며 조심을 조심해 거듭하고 있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자연임신과 출산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부모의 큰 행복이다.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35세 이상의 고령에 결혼과 임신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유령 배우들이 불혹의 나이에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고령 임신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었다.

과거에 비해 고령임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35세 이전의 여성보다 임신 전 자궁 관리부터 임신 기간에 주의할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령의 첫 임신일 경우에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과 같은 양성종양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혹의 나이에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자연분만하기 위해서는 임신계획 전 자궁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 30세 이하의 여성이 한 달을 기준으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 20%

이며, 만 40세가 넘으면 약 5%대로 떨어질 수 있다. 임신에 성공했다라도 기형아 증가를 비롯해 자연 유산 가능성이 30세 이하 임신부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

임신율이 감소하는 원인은 난자의 양이 줄어들고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며, 자궁에 생기는 양성종양이 35세 이상 여성에서 40% 이상 나타나는 만큼 자연 임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은 임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 자궁근종은 초경기부터 폐경기까지 점점 성장해 40대에 가장 커지게 되며 그로 인한 생리과다, 생리통, 복부 불편함, 배뇨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임신과 유산에도 영향을 끼친다.

35세 이상의 여성이 자궁에 양성종양이 있다면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의 치료를 한 후 임신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임신을 계획

할 경우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자궁근종이 태어와 함께 자랄 수 있으며, 근종의 위치에 따라 유산과 난산을 일으킬 수 있다.

고령의 여성은 임신 계획 최소 3개월 전부터 남편과 함께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위해 식습관 개선과 가벼운 운동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은 피하고 엽산, 비타민 등을 꾸준히 복용해 건강한 자궁을 유지해야 한다.

임신 계획 전 산전검사를 통해 자궁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이 있을 경우는 자궁을 보존하면서 근종만 제거하는 비수술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과 분만이 가능하다.

비수술 치료는 고강도 초음파를 체외에서 근종에만 집적하는 시술로, 30세 이전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의 가임기 여성들도 시술 가능하다. 시술 시간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1~2시간 소요되며, 시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동네 경기장 온 외국 청년들 만나러 가자

주 U대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세계의 젊은 청년대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경기력을 겨루며 우정을 다지는 국제 스포츠 제전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절찬리강연이 U대회에서 매달을 수상한 경협이 있을 정도로, 경기 수준도 매우 높다.

대회는 모두 21개 종목에 걸쳐 열린다. 축구, 배구, 농구와 체조 등 13개 정식종목과 골프, 배드민턴, 야구 등 8개 선택종목으로 나뉜다. 중요한 점은 이들 대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친숙한 경기장에서 열린다는 것이다. 경기장 37개소와 훈련장 32개소 등 모두 69개소 가운데 대부분이 기존시설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일단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선수촌을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부대비용 절감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의 직접 생산효과만 1조9천억원, 부가까지 9천억원, 고용 창출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역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광주의 이곳저곳에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국제테니스장, 양궁장의 건축 모습을 볼 수 있고, 간선도로 개설 확충공사도 마무리가 한창인 것을 볼 때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이 도움이 될 듯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유일한 흑자대회가 될 것이니, 그렇지 않으니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지어진 경기장은 두고두고 지역의 체육시설로 활용될 것이고, 새로 풀리고 확장된 간선도로와 선수촌으로 재건축된 아파트는 도심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이다.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가 불만만 대회인데,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경기가 열린다니, 참 반갑고 꼭 가볼 일이다. 거친 숨을 내쉬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있는 경기장을 찾아 따스한 남도의 정을 느끼도록 살갑게 맞아주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칠지라도 친절하고 반갑게 맞아주자.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사람의 정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된 말보다 손짓, 눈짓 하나하나가 훨씬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일 수 있다. 대회 참석자가 무려 170개국에서 2만 명이 넘는다는 경기만 열리는 게 아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총회를 비롯해 컨퍼런스, 포럼 등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도 곁들여진다.

광주시는 이들 손님맞이를 위해서는 3만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진척부터 20개 대학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0개 분야로 나눠 직무교육과 심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자원봉사활동은 성공적 대회운영의 필수사항이자,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자원봉사를 통해 직접 외국인들과 만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안목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익하다고 본다.

남도의 중소도시, 변방의 낙후도시 줌으로 치부돼 온 광주가 어느새 세계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여 스포츠 제전을 펼칠 정도로 폭풍 성장했음을 새삼 느낀다.

광주가, 전남이 세계 속의 도시로 성큼 성큼 나아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시·도민들의 시민의식과 문화수준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이제는 우리 안에 담겨진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이번 U대회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일만 남은 듯하다.

기고



김권필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원장

광주 시민들이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 출범한 프로야구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광주 4강전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번엔 광주에서 초대형 종합스포츠 행사가 열린다. 바로 2015 유니버시아드대회이다. 지금까지는 지역민이 스포츠 축제에서 관객이자 구경꾼일 뿐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오롯이 주인으로서 치러야 하는 대회가기 때문이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종합 스포츠대회다. 올림픽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이벤트로서 2년마다 홀 수 년도에 개최된다. 광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U대회 성공 시민 자발적 참여에 달렸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장은 물론 모든 대회 관련 시설과 운영·지원 조직이 실전 체제로 전환됐고, 무등산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채워진 역사적인 선진도 봉송길을 내딛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선수와 임원, 심판 등 참가자가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를 치르도록 수송과 선수촌·경기장 운용 등 경기 분야별 준비를 빈틈없이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과 송정역에 상황실을 설치, 최상의 선수단 맞이와 위한 완벽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선수촌도 최종 운영점검을 끝낸 뒤 오는 26일 개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경기장 중 일부에서 세부적인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막 전 완료될 것으로 보여 대회 준비가 기다리는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이제 대

회 성공의 열쇠는 시민들 손에 쥐여졌다. '퍼펙트 대회'를 위한 마지막 '화룡점정'은 뒤풀리해도 시민들의 열성적인 참여인 만큼 대회 열기는 시민들이 직접 달궈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 참여는 결코 어렵지 않다.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잔칫집에 초대된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의 태도만 보이면 된다. 미소와 친절, 봉사와 나눔, 양보와 희생, 정결과 위생 등 경기장 주변과 음식, 교통, 숙박, 관광, 문화행사 등 손님을 만나는 분야에서 시민과 업주, 종사자가 실행하면 된다.

경기 관람도 필수다. 입장이 무료인 종목도 있고 대부분 1만 원 내외다. 당대에는 더 이상 광주에서 향유하지 못할 국제적 종합 스포츠제전에 가족, 친구와 함께 한바탕은 찾기를 권한다. 주인으로서 임무를 다한 후 밀려드는 뿌듯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민의 자라는 늘 함께하는 대동정신이 아닌가.

공공 환경시설이 오염물질 배출해서야

행정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광주지역 환경시설 3곳이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환경시설이 오염 저감 기능을 제대로 못해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700억 원을 들여 건설된 광주 서구 유덕동 제2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가동 4개월여 만에 법적 기준치의 4배 이상 초과한 악취물질을 배출해 왔지만 현재까지 원인조사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설은 발암물질인 톨루엔, 자일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20개월째 배출하고 있다.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하수슬러지시설도 지난해 10월 법적 기준치의 두 배 넘어선 악취물질을 배출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됐지만 8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 여전히 악취를 풍기고 있다. 환경공단 위탁 관리의 광산구 분덕동 광주 제1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도 지난 2013

년 기준치를 넘어선 악취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올 4월에야 설비 보완에 나서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샀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악취 배출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줄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시설을 지은 건설사와 광주환경공단 등이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악취를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시설이 들어서 있는 이 일대 주민들은 연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악취 배출을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이 법을 장기간 위반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원인 규명에 나서 하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 관련 공무원과 시공사에 대해서도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오염 배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옛날, 쥐꼬리보다 못한 봉급에 맨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기자가 있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물었다. "기자야, 기자야. 넌 뭘 먹고 사니?" 그러자 기자가 대답했다. "낮엔 금지 먹고, 밤엔 술 마시고, 아침엔 나이 먹고 살지." 비록 박봉(薄俸)에도 기자정신으로 무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광주일보 창업주인 고 김남중 회장이 생전에 즐겨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술 마시는 저녁,

아, 광주일보

아, 광주일보를 맞이한 한국일보의 경우 지난 4월 임은 하립없이 술집으로 끌려가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몽사몽간에 기사를 쓰느라 끄덕거리야 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자상(記者像)도 많이 달라졌다. 독립신문 이후 광복까지는 흔히 지사형(志士型)으로 불렸던 기자들의 높은 기개가 있었다. 을사늑약(乙巳勅約)과 관련 장지연 선생이 황성신문에 쓴 '시일야방성대곡'(晝日也放聲大哭)은 당대 기자정신의 정수(精髓)였다. 자유당 정권의 언론 탄압 이후에는 항일(抗日) 지사형(志士型)의 전통적 기자상이 반독재 투사형으로 바뀌었다.

한때 '언론고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기자가 인기 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엔 많이 시들해졌다. 무엇보다도 신문사의 난립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6월항쟁 이후 건설사들이 신문사 경영에 대거 참여하면서 언론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다. 기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도 명색이 신문사 회장이라며 거들먹거리는 꼴까지 보게 됐으니 오호 통재(嗚呼痛哉)!

최근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주를 맞이한 한국일보의 경우 지난 4월 임은 새 주가 신문사의 경우 인적 구성이 중요하며 특히 기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곧 신문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주일보의 새 시주 역시 언론에 대한 이해와 애정과 열정이 있는 분이었던 좋겠다. 그리하여 광주일보가 계속해서 호남 대표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장·단기 투자 계획 등의 청사진과 함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희재 논설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